朝鮮日報 夕刊 八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朝光』 同『女性』 同『少年』

社說

產金增進策 —金買上價引上과 出願處理의敏速—

事變下 國際不安의 情勢下에 잇서 金의 重要性이 倍加함은 再言을 不俟하는것으로 이미 政府는 產金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各種獎勵助長政策을 實施하고 產金增產에 努力해오는中이나 歐洲動亂에 依해서 朝鮮의 產金界도 큰衝動을 밧고잇는이때 產金業者로서의 要望의 一二를 擧하여 그緊急性을 强調코저한다. 그하나는 產金買上價引上이오 또하나는 新規出願에 對한 敏速處理이다。

一

첫재金買上價에잇서서는 昨年五月二日에 一匁十四圓四十三錢七厘五毛(一瓦三圓八十五錢)로引上된後 지금까지 그대로두어 海外市勢와는 그差가대단히크다。元來我買上價格은 相當한『마-진』을包含한터이니 海外換算市勢보다 幾分低位인것은 當然하다 그것이 이런歐洲戰亂에 依하여 價差가懸隔해젓다。卽英蘭銀行은 金買上價格을 一톤로이온스에八磅八志로 公定햇는데 對英一志二片으로 換算하면 一瓦四圓六十三錢 一匁十七圓三十六錢이되어 英國에比해서 一匁二圓九十二錢、一瓦七十八錢이싸다。또米國의金買入價 一온스三十五弗을 對日二十三弗十六分七로 換算하면 一瓦四圓八十錢、一匁十八圓이되어 米國에比해서 一匁三圓五十六錢、一瓦九十五錢이싸다。

뿐만아니라 滿洲에서는 闇市勢로 一匁에三十圓、上海서는 四十圓이나되므로 密輸出이 不絕하고 採算難인 產金業者로부터 買上價格引上論이 再然되고 朝鮮內業者는 近近 當局에陳情하리라한다。

三

이에對하여 大藏省當局에는 意見이對立되어 容易히 處斷치못하고 不引上의 聲明이잇섯지만 反對論의 根據는 薄弱하다아니할수 업다。產金이 豫定計畫대로 進行되지안는 重大原因은 勞働力不足、資材不足關係가업는것은 아니나 무엇보다도 勞賃、資材昂騰으로因한 採算難에잇다。아모리 國策的事業이라 할지라도 利가업는곳에 企業熱이 생길수 업는터이오 採掘되는것도 價差가甚한만큼 密輸出로 나가고마니 이것은 輕忽에附할수업는問題이다。朝鮮서는 金融團이 國策에協力하여 各機關을 總動員해서 金集中에 努力코잇스나 아직 顯著한 效果를 거두지못하고잇는것도 注目된다。海外市勢에좃차 자꾸引上할수업는 點이라던가 引上前에 賣却한者는損이되어 不公平하다는 點을드러反對理由로 삼는것도 그리重視할問題가아니다。銀과가치 每日海外에 追隨하여 寫眞市勢로는할수업드래도 너무나 價差가큰것은 引上縮積가 當然한 일이오 新產金에만 新引上價로 買上하고 民間의 退藏金、金製品가튼것은 從前價로 買上하는方法을 講究하면 獻金運動과相俟하여 別로惡影響이업시 產金增產의 目的을 達할수잇슬가한다。

四

끗트로 出願件敏速處理에 잇서서는 朝鮮에 無盡藏한埋藏金이 잇는點으로보아 時急을 要하는 問題이다。今年 一月부터 九月末까지 新規出願이 一萬二千四百件으로 激增되고 昨年以來의 未處分累計와 合算하면 未決閣속에잇는 件數가 近五萬件이라하니 이것을 그대로 遷延할것이아니다。關係當局의 人員不足이 이러한 事態를 무케한것이거니와 產金增產에 熱이잇다면 擴張對策이 잇서야할것이다。產金關係國策會社로 轉換한 關係官의 人員不足을 招來한 原因이되엇거니와 產金關係事務의 遲滯는 하로바삐 敏速化를 圖하여야할것이다。產金界當面問題로서는 金買上價를 引上하므로써 含金品位의 低劣한 鑛山으로서 採算이 맛게하여 金增產을 圖하는 同時 未決件數를 速히 處理해서 新鑛區開發을 促할必要가잇슬것이다。

政府米買受申請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 公定價格에依한、六日政府米買受申請數量은 如左하다

九年產	四八八
十年產	一八、五〇〇
十一年產	一、七九二
十二年產	五、〇二九
合計	二五、八〇九

英國、獨提案에不滿 對獨回答은否定的? 十日頃英首相態度闡明

【倫敦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이 六日國會演說에서 示唆한 和平提案에 對하여 英國政府가 如何한 態度에 나올는지는 歐洲今後의 運命을決定하는것으로서 注目의的이되어잇는데 英國政府의態度는 자못 愼重을極하여 七日에도 和平提案檢討를 續行하는 同時에 그回答形式을 愼重協議하엿다 確聞하건대 英國政府로서는 如何한 對獨回答을할것인가를 決定하기前에 佛國政府와 自治領과 充分協議하려는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따라서 右協議終了까지에는 相當한 日子를要할것이고 오는 九日의 下院에서 쳄벌린首相은 이에 關하여 아모聲明을 發하지안흘것이므로 아마도 十日或은 十一日 쳄벌린首相의 下院에서의 週間戰況을 說明할때에 闡明하지나안흘것인가하다 그리고 七日消息通側에서는 쳄벌린聲明內容을 豫想하여 如左한見解를 述하엿다

六日夜發表의 外務省콤뮤니케에 依하여 히틀러總統의 和平提案에 對한 쳄벌린首相의 聲明이 否定的인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고한다 卽 쳄벌린首相은 獨逸의 和平提案의 現在가튼 形式으로는 到底英佛兩國을 滿足시킬것이못되고 和平交涉에들어갈수업다고 聲明할것이며 就中히틀러總統의約束은 信賴할수업고 또 波蘭의 征服及 이에對한 不法한措置를 旣定事實로하여 그承認을要求하면 平和回復達成은 困難하다고 强調할것이다 (寫眞은 쳄벌린首相)

調停說에 米沈默 英佛側에서 要請時엔考慮

【華盛頓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六日의國會演說後 獨逸政府側으로부터 루즈벨트大統領이 調停仲介에努力하리라고 생각한다는 說에對하여 米國政府當局은緘口하고잇다 週末休養次 하이드파크에 가잇는 루즈벨트大統領도 右說에對하여『아므말도 할것업다』고 一切沈默을지키고 一方헐國務長官도 이에對한 質問에『萬一余가批評한다하여도記事는 안될것이다』라고 諧謔을交하여答하엿다 이意味는 獨逸이 一方的으로 和平을提議하엿다하여도米國이 批評할時期가아니라고 解釋되는바 旣報와가치 米國은 自進하여 仲介斡旋의勞를 取할機運에 일으지안코 英佛側으로부터 히틀러總統의 呼訴에應하여 米國의仲介를求하여올 境遇成功할可能性이잇스면 달리考慮하겟지마는 問題는 要컨대交戰國間에서 端緒를지어야할것이라하여 冷淡한態度를가지고잇다

【華盛頓七日發同盟】米國政府는 歐洲戰爭勃發에 伴하여 軍備擴充에 拍車를加하고잇는데 陸軍省은 七日米國正規軍의 平時常備兵力을 最高限度 二十八萬으로擴張하기위하여 議會에 對하여 超機械化裝備를 가진『流線型師團』四個師團 合計兵力五萬三千의 新戰鬪兵團 新設許可를議會에 要請할 意向이라고 發表하엿다 이와同時에 陸軍省은 來十月二十五日부터 『流線型師團』七個師團의 訓練을開始할 旨를發表하엿다

獨軍戰果發表

【伯林七日發同盟】獨逸軍最高司令部는 七日正午콤뮤니케로써 波蘭戰線에서의 殘敵掃蕩戰과 漸次活潑化해오는西部戰況에對하여다음가치 發表하엿다

▲東部戰線 비스툴라河東方及스칼키地方에서의 獨逸軍은 蘇聯軍과의協定下에 何等의事故도업시 獨蘇境界線을 向하여 逐次波蘭軍殘敵을 掃蕩하면서 前進中이다 就中코크市에서는昨六日波蘭軍師團長二名及士官百名이 獨逸軍에 投降하엿다

▲西部戰線 敵機의 偵察活動은部分的으로 繼續되는데 그때 마다 擊退되고 그以後에는 若干의 砲擊戰이 繼續되는데 不過하다 七日 佛軍偵察機數隊는본市의 地點에서 라인河渡河를 試하려하엿스나 獨軍戰鬪機及 高射砲隊에 擊退되어 그中一機는 고테스부룩市의 空中戰에서 擊墜되엇다 또一機는 오이스킐헨市에서不時着을 不得已하게되고 佛軍參謀本部附中佐를包含한 四名의 乘組員은 捕虜가되엇다 但 獨逸機에는 何等의 損害도업다

獨蘇間通商提携 原料品과工業品의交換目標

【伯林七日江尻同盟特派員發】獨蘇兩國經濟提携를 强化하고저經濟使節團리타通商局長以下一行은七日午後伯林出發莫斯科를 向하엿는데 獨政府의 發表에依하면 이것은 獨蘇經濟提携協定에關한 具體的方針討議때문인데그內容은

一、獨逸은 蘇聯으로부터 原料資源의 供給을맛기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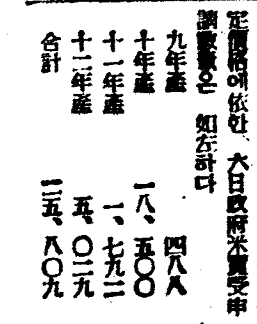
一、獨逸은 工業製品으로서 그의 代價로하고 그償却期間은 長期로함

一、그貿易總額은 過去兩國貿易關係의 全盛期를 目標로함

그런데 獨逸의目標는 戰時에잇서서 緊急不可缺한 食糧品、金屬、原油、纖維原料其他의 原料品을 輸入하고 英佛과의 長期作戰에對備하여 後方補給에 萬全을 期하는데잇슴은 勿論이다 이에對하여 蘇聯으로서는 獨逸의 抗戰力을 强化하여 歐洲動亂의 惡化를꾀하는一方 必要한 機械類의 輸入에依하여 第三次五個年計畫의 完成을 促進하여 動亂終局에 備하려는 一石二鳥的의 效果를目的으로한것이라한다

蘇、리會談再開 리國外相莫府訪問

【莫斯科七日發同盟】七日午前코브노市를出發하여 다시莫斯科訪問의길을떠난 리투니아外相울부시스氏는 七日午後五時半 空路로 莫斯科에到着하엿다 이어午後十時 外務人民委員部로 모로토프委員을訪問 重要會談을開始하엿다



世界週史

貿易省新設決定

政府에서는 일직貿易省設置에 對하여考慮하는바잇서서 企劃院으로 하여금 그案綱을研究케하고잇던바 三日定例閣議에서 企劃院出席下에 企劃院案을中心으로 愼重檢討한結果 大體로企劃院案을 承認하기로決定하고 그事務官制의細目에對하여는『貿易省設置委員會』를設置하기로되어 貿易省新設案을 正式으로決定하엿다 그後이新設案에對하여 外務省事務當局으로부터 猛烈한反對運動이잇서서 意外의波紋을일으키고잇다

修水、中山縣占領

湖南作戰部隊는 南昌西南方의 要衝을擊破攻略하여 敵遺棄死體二萬五千을어든後敵約十萬이 頑强히抵抗하는 第九戰區의 最後牙城인 修水에對하여 猛攻을加한結果 五日 修水城內에 突入하엿다 一方南支軍은 七日香港地方과珠江에 通하는 水道를把扼하는要地中山縣을攻略 一擧에 同地를占領하엿다 中山縣은 孫中山의生地로 支那革命의由緖기픈곳이다

英佛、對獨態度宣明

獨逸의 和平提議에 對하여 英國쳄벌린首相은 三日下院에서 如何한 提議도 英國의 戰爭目的을 達成하기前에는 斷然拒否한다고 闡明하엿다 一方佛國政府에서도 四日下院에서 首相이 暴力에依한 支配를 排除하고 武力의 威脅이 업는 世界各國民의 絕對安全을 確保할 恒久的平和를 確立할때까지 어디까지 戰爭을 繼續할旨를 闡明하엿다。

米、波蘭政府認定

헐國務長官은 二日新聞記者團과의定例會見에서 蘇聯政府가波蘭領占領을 通告해온데關하여 蘇聯의 通告는 一方的性質의것으로서 米國政府가 承認하는바가아니라고言明하고 또波蘭政府의存在에對하여 米國政府는 二十餘年前에 波蘭政府를 承認하여以來外交關係를 持續해왓는데波蘭은 至今武力의 犧牲이되어그領土가蹂躪되고 政府는國外로避難하엿스나 單純한領土의 占領은 波蘭政府의 合法的存在를否定하는것이아니므로 波蘭政府의存續을認定하는旨를 聲明하엿다。

英佛土援助條約

英國官邊情報는 懸案의英佛土三國間 互相援助條約은 九月末에 앙카라市에서 調印을마치어 近近正式調印을 보리라한다。土外相사라죠글氏가 莫斯科에滯留하여 蘇土協定說이 傳하며 一方土國軍事使節은 倫敦에 到着하엿다하는바 右는 蘇、英의 土國爭奪戰이 猛烈한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히總統의和平提唱

五日 왈소入城式을마친 히틀러總統은 六日正午 國會에臨하여 一大獅子吼를 試하엿는데 現下歐洲政局收拾에關하여 國際會議에依한 和議를 提唱하엿다 그內容을 要約하면 一、獨蘇間의 波蘭境界線은 最終的의것이아닌것 一、波蘭國存在를 認定할생각이잇는것 一、英國에對한 植民地要求는 버리지안흐나 이것은 暴力에依하여 解決할생각은 업는것 一、獨逸은 발칸方面에 進出할생각이업는것 一、獨逸은 世界制覇의野心이업는것 一、蘇聯과의 友好關係는 永久的인것 一、獨逸은 歐洲各國을 疎隔하는모든問題를解決次 各國이 武器를버리고 歐羅巴會議를 開催할것을 提唱한다는것이다。

金光拓相溫陽에

總督府에서 中南朝鮮地方旱害에 關한 概況과 對策聽取를完了한 金光拓相은 繼續하여 罹災現地視察에가기로되어 八日午前八時半 朝鮮호텔發 自動車로 永登浦에가서 鐘紡京城工場을視察한後 同十時二十二分 南京城驛發 山本農林局技師案內로平澤에가서 同十一時五十六分 平澤驛着 郡廳에서 晝食을 取한後 京畿道內의 旱害地視察을繼續하고 稷城으로부터 忠南牙浦에가서 仁州面을經由 溫陽으로向하엿다

日曜氣配

【大阪電話商通】▲株式 維株를中心으로 하는 擬裝買氣는 頑强하나 歐洲의 形勢觀望으로 躊躇하여 氣配不變

大新 八一、五四 東新 一五四、二〇
鐘紡 一七五、八〇 滿業 八一、八〇

我荒鷲의 猛爆擊 (湖南省粵漢線 汨羅驛附近)

亡命쳐코政府 佛國正式으로承認

【巴里七日發同盟】베넷슈前 쳐코大統領은 六日倫敦으로부터 巴里에到着、곳亡命쳐코政府組織에 着手하엿다 七日베넷슈氏는 佛政府는 亡命쳐코政府樹立을 承認하엿다고 正式聲明하엿다 (寫眞은 베넷슈氏)

西南、外蒙을基地로 蘇、中國領土侵略 新中央政權樹立에對한措置?

【北京七日發同盟】當地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沒落過程을것고잇는 重慶政府의 據點을衝하여 蘇聯政府의 中國滲透工作은 最近依然 露骨하게되어 新疆、青海、甘肅地方의 重要資源은 蘇聯의손에掌握되고 隱然히 떼낼수업는勢力을 扶植함에 이르렀다고 傳한다 就中西北과 外蒙方面으로부터의 進出은 顯著한바가잇서軍事公路를 넘어中國國土의不法占據를하고잇다한다 消息通間에는 蘇聯은 이旣成事實로써 汪兆銘의 新中央政府 樹立에對한新局面에 對處하려고하는 魂膽이라고 하는바 蘇聯今後의動向은 頗히重視된다

江南掃蕩戰과 後方輸送隊苦心

【中支戰線○○에서七日發同盟】今番江南의 敵中央軍掃蕩戰에서의 後方輸送隊의 活躍은 永久히 잇지못할 戰史에 特筆할만한 功績이엇다 卽 今番作戰에 努力한것은 그地形이 峻嶮한江東의 重巒山岳과 丘阜地帶이엇든데 敵은 我進擊에 猶威되어 公路는 勿論이려니와 길이라는길은 全部破壞하여 車輛은 全然 不通하는 狀態이엇다 그때문에 軍은 不得已 補給을全部 馱馬에 依하엿슴은 이른가튼 大部隊의 補給을 全部馱馬에 依하게되므로 將兵의 辛苦를 倍加하엿슴은 勿論 作戰도 亦是 頗히 制約되는것이기 때문에 輸送隊는 이障碍를 最少限度로 막아서 미리 周到한 計畫으로 作戰하여 開始以來全隊는 一體가되어 銳意輸送에當하여 이런 惡條件을克服히排除한것이다 가을이라고하나 炎熱에 待하는 勇士들의 笑顏을 보고 다시그길을 돌아서는 輸送隊모양은 感謝의 눈물업시는 보지못할 光景이엇다 이리하여 輸送隊가 突破한 全道程은 어떤部隊는 ○日間에 五百킬로를넘을적도잇서서 敵彈에 넘어진 勇士○名 일허버린 軍馬○○頭를 헤아리며 새삼스럽게 輸送隊의 辛苦程度를 首肯回顧하엿다

駐米大使就任說 宋子文은否認

【香港七日發同盟】最近國際情勢의激變에 對應하고저 重慶政府는 駐蘇及駐米大使의更迭을 決定하엿다고傳하는데 目下香港에滯在中인 宋子文은 七日午後UP記者와會見하고 그의駐米大使內定의報道를 否定하엿다 이에關聯하여 大公晩報는 다음가튼說明을 加하고잇다 『[illegible]의駐米大使는 이미決定된重慶政府의 常務委員에任命되엇스므로 事實上海外에갈수는업다 一方重慶政府는 太平洋會議에 出席하려고 加奈陀로向發한 顏惠慶에게 會議終了後 米國에滯留하여 胡適大使를 輔佐하도록要請하엿다고하는 旧胡適의 後任으로서 最適任인 顏惠慶이 駐米大使就任을受諾하면 宋子文自身의渡米는 不必要하게될것이라고보인다 宋子文의 駐米大使就任은 그의財政上 經濟上의立場으로보아 그受諾은 非常히困難하며 特히四大銀行의聯合辦事處가 重慶에設置되어 ...

外務省紛爭 前途豫想不許

【東京電話同盟】野村外相은 七日事務當局에 解決案을 提議하여 事務當局側의 愼重한考慮를 要望하엿는데 野村外相은 右案으로써 最後的의것이라는 決心을굿고 唐澤法制局長官과도 文書로써 此旨를確約하엿다 또七日의 阿部首相과의 會見에서도右解決案으로써 事務當局에臨하여 萬一이것을 承服치안는境遇에는 斷乎한 處置를 取하자는데 意見一致를보고 模樣이다 따라서 八日 事務當局側의 意向을聽取한後 九日早朝부터 全課長全事務官을 한사람식 招致하여解決案 承服與否의 回答을 求하여 不承服의時는 直時 辭表提出을求할것으로 보여다 이리하여貿易省問題에 發端한 外務省의紛爭은 依然 空前의 重大結果를 惹起할지 모르게 되엇다

蘇、芬蘭을强壓

【스톡홀름七日發同盟】芬蘭政府는 蘇聯政府에서 代表派遣을要請한데對하여 目下愼重研究中인데 이에關하여 莫斯科로부터스톡홀름에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은 芬蘭에對하여 오란드島非武裝保障及 크론스타트 防備가不可缺인것 혹크란드島의 租借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前例에따라 承認시키려고 意圖하고잇다고傳한다 一方芬蘭軍當局은 이런情勢에 對處하여 中立을維持하기위하여 豫備兵召集을 開始하고잇는模樣이다

蘇聯駐伊大使任命

【莫斯科八日發同盟】蘇聯聯邦幹部會는 七日고레노킨氏를 駐伊大使에任命한旨를 進達하엿다

人事·集會

◀李甲寧氏(上海居留民會長)視察次入京中人事次來社
◀朴容廷氏(同參事)同上

八面鋒

◇히틀러演說을 土臺로 英國은 佛國과 自治領과 協議를 開始햇다고。

◇히틀러提案이 屈伏的인것은 事實이나 波蘭占領을 旣成事實로 認한다는 提案을 英國이 들을가 몰라。

◇佛國도 平和의 保障업시는 休戰을 못하겟다하는것은 이것을 意味。

◇伊太利는 和平을 希望、米國은 監視。蘇聯은 缺裂을 希望。

◇火中의 밤을 줍는것이 아니라、火中에 物件을 훔치는 蘇聯、이번엔 新疆省으로 侵入하여 汪兆銘 政權下의 旣成事實을 認定바드랴 着着 占領工作。

◇抗日容共을 煽動한것도 蘇聯、獨波戰爭을 일으킨것도 蘇聯。蘇聯은 世界戰爭을 일으켜 各國을 疲弊케하고 그뒤를 찌르려는것이 本心。

◇外務省 紛爭은 外相의 强硬態度로 惡化。

◇阿部首相、野村外相의 政治的手腕의 試驗期。

今日本紙四面

코 鼻 가나쁘면 머리가 둔하여진다

蓄膿症(축농증)이나 頭重(머리무겁고)·頭痛(두통)나는분

感氣에 걸녀 코가맥켜도괴롭고머리가띵한데 腦와엷은막(鼻膜)한거플과 相接해잇는코속기픈틈새에 더러운균(菌)이엉켜 썩어저가지고 고름(膿)이 생겻다면 腦에미치는영향이 클것이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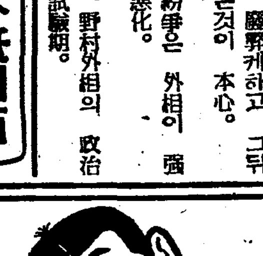
卽이러케된처음에는 머리가무겁고 지근지근하지만 나종에는一時라도맑은精神을가질수업고 時日이 오래되면自己도몰으는새에廢人이되고他人에게도괴로옴을끼치게됩니다『코병쟁이야』하고 허술히생각하지마십시오

그것은 이 코병때문에 일어나는 蓄膿症가튼것은勿論 頭痛 不眠症 현기증 健忘症 귀병 눈병 냄새못맛고 飮食맛몰으며 코피자조흘리는등 가튼여러가지증세생각만해도 소름이끼치지안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한 코병(鼻病)을 放任할수업게되여 코병에對한藥도 數업시생겻스나 모다가 一時的效果가 잇는듯한것뿐이엿습니다 그래서이런 엉터리업는약에 만히속앗고 卽神經을마비시키는데不過하엿습니다 그래서치료를도중에 中止한분이만히생겻든것임니다

그러든中內地에서第一有名한 湊(미나도)博士께서크게걱정하시고外國에가서數十年을實地로研究를거듭한結果發明된것이『미나도式』鼻療인데 이것은 그야말로自己가患者된立場에서 良心的으로맨든것이기때문에效果는의심할여지가업고 只今患者여러분께서大歡迎을밧고잇는것은宣傳이아닌두렷한事實임니다

無代進呈



十大博士가권장하는 最新吸癒療法(최신흡유료법)

이약은다른약과는根本的으로달나서 제아모리時日이오래고重한고질이된것이라도 뿌리를뽑고야마는것이특징임니다 그것은 이약은여태까지업든 묘약 가루약 고약등과달나 독특한 巧妙히된기계로쏘는것인데이기계로약을코속어느곳엔틈새에나쪽퍼지게되엿스므로더러운균을죽이며 엉킨고름(膿)도쪽빠지게됩니다 그밧게쓰기가편하고效果가신속하고비용이적게든니다

코병 잇는분又는코가이상한분 手術겁나는분 再發된분 치료법을나망서리는분들이한번보면알수잇는『미나도』博士가쓴說明書와相談用紙를無料로보내오니ハガキ로請求해주십시요

藥價 七日分(試驗藥) 五十錢 廿日分 一圓五十錢
重症用(六十日分器具付) 一金五圓
輕症用(廿日分器具付) 一金二圓五十錢
送料(七日分)十錢 (重輕症用)各三十錢
和信百貨店藥品部外全國有名藥房에잇스나 업는때는本舖로直接注文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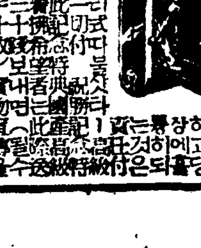
京城府本町四丁目六番地 株式會社 湊製藥京城營業所 振替京城三一、一二一番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三ノ七 湊製藥株式會社 振替東京三七〇八八番

미나도式 (ミナト)

半島레코-드界에 初有의 大全集
第二回予約募集
沈淸傳 (二十二枚)
萬古名唱 李東白 丁貞烈 金昌龍 曺學珍 林素香
第一回大發賣
포리도-루레코-도

보루히네 患者大福音
高速度鎭痛劑
試供用無代進呈 有資格者限
ネオ テルダイン
九鼎公司藥品部 京城府唐珠町七 電光(3)3555

ツバメ寫眞機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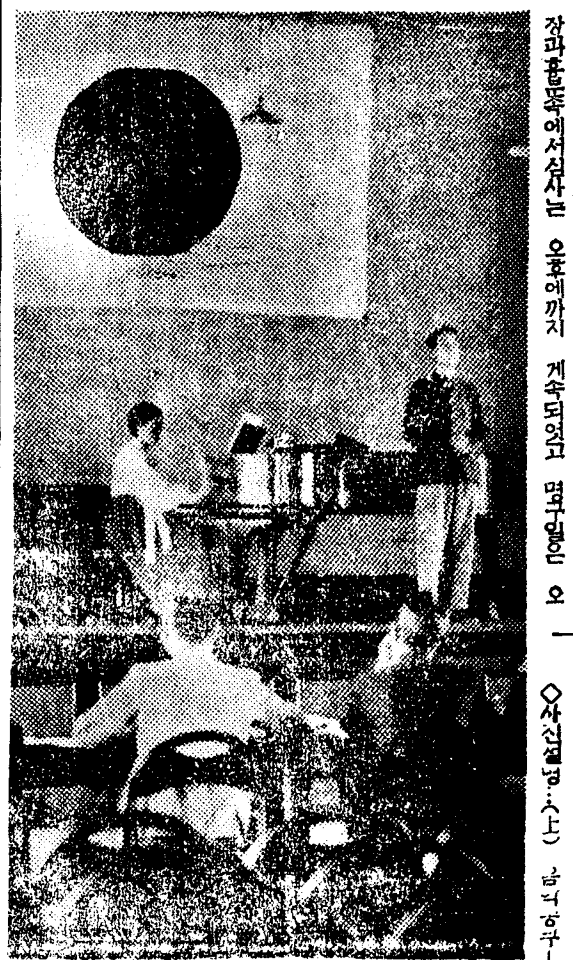


ツバメ寫眞機商會

金剛寫眞場

本社主催音樂콩쿠ー르 今日부터豫選審査

登龍門前의前哨戰!



樂ー즈의가을 음악조선의 건설을위하여 본사에서 주최하는제사회 전조선남녀음악(全朝鮮男女音樂)콩쿠ー르는 예정과가치 하루(一日)하고 바람을믿은 금월일오전 열한시부터 홍란파(洪蘭坡), 김세형(金世炯), 안병소(安柄玿), 김원복(金元福)씨등 제심사원(審査員)의 열석아래 본사대강당에서 제일부의 예선(豫選)심사가 시작되엇다

해를거듭함에따라 이『콩쿠ー르』를 목표로 조선의젊은음악회도의 열성과 패기가더욱더 노파지고 잇는중 금번에는 더한층이『콩쿠ー르』를 빗내게할 미래의 음악가들이 열리만주의할만큼 비롯하여 동경과 전조선각지에서 참가하는 예번에언는 대성황을 이루엇다 특히 이번『콩쿠ー르』응모자중 성악(聲樂)지망이 거의 전부이엇던 예번에 비하여 금번에는기악지망자가 훨신늘엇다는것도 반가운현상이요 더욱 남자로서 독점이 되다시피하던 그전과는 달리 금번응모자중에는 여류음악도가 십여명에 달한것도 또한 기꺼운발전이라고 보겟다

금일(九日)은 위선 성악부(聲樂部)의 예선을 시작하기로되엇는데 개시하기전 본사 사업부장 홍기문(洪起文)씨의 응모자일동에대한 인사와 또 주의가잇슨후 추첨으로 예선에등장할 순서를정하고 뒤이어서 예선의심사가 시작되엇는데긴장과흥분속에서심사는 오후에까지 계속되엇고 명후일은 오후네시반부터 다시 기악의 예선심사가 잇슬터이다 (사진은 긴장속에 전행되는 콩쿠ー르예선심사광경)

待望의公開決選

十一、二兩日 每夜七時 於府民舘

第一夜=聲樂、第二夜=器樂

오늘과 내일에걸처 예선에 뽑힌 사람만을가지고 공개결선은 드디어 오는 십일일, 십이일 이틀동안 매일 저녁일곱시, 부민관에서 열게된다 십일일에는 성악, 십이일에는 바요린과 피아노로서 오늘 내일의 예선의 흥분과 아울러 이날의 최후의 관문을거처 등룡문에 오를『새사람』에 대한 기대는자못크다

◇사진설명◇(上) 금번콩쿠ー르 성악예선에등단안 신청자와 (下)긴장한 심사위원씨제들

釜山丸 乘客을檢便

인천경찰서에서는 칠일 정오 청도방면으로부터 인천항에 드러온 부산환(釜山丸)승객 일백스물여명에 대하여 호열자균을 가지지 안핫는가고 의심하고 전부 대변을 바다서 검사해본결과 모두 음성(陰性)으로 결정되엇다

腸疾扶斯患者 二名이發生

팔일용산서 판내에 장질부사환자두명-◇욱석정(旭石町)일백칠십번지 송본군자(松本君子)(二)의삼호 라는 색씨는 수일전부터 열이몹시나고 몸이아퍼 칠일아침의사의 진찰을바든결과 장질부사로 판명되어 순화원으로 데려갓고 ◇용산철도병원구구락부(俱樂部) 안에사는 원도영자(原島英子)(二)도 몸이 불시아퍼 진찰한결과 장질부사이엇스므로 철도병원 격리실에 수용되엇다

急死한果物行商

虎疫患者라는疑心잇다고 生課衛、目下檢鏡中

부내아현정(阿峴町)산(山)팔번지의칠호 남인원(南仁元)씨의집에묵고잇는 남을룡(南乙龍)(三六)이라는사람은 지난칠일부터 병으로앓고누어 잇섯는데 칠일저녁에 호렬자의심이 잇다고 용산경찰서에 보고하엿다 그경찰서에서는 곳 정상(井上)김(金)두 경찰의사를 보내엇든바 의사가 도착하는때 오후일곱시에 죽어버렷다 그는 석달전부터 충청남도시방으로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과일행상을 하여왓는데별안간에 병이나서 죽은것으로 수위사정계 계통을 보아서 호렬자에 걸릴 까닭이업스나 그래도대변을 검사하기로되엇는데 팔일저녁에라야 좌우간에 판명되리라한다

咸北巾着網業者

重油增配를上京陳情

出漁不可能의死活問題라고

함경북도건작망(巾着網)업자대표는 요새, 서울에와잇스면서중유(重油)배급문제로 총독부에진정하고잇는중이다 올에, 함경북도업자에게 배급될 중유는일만삼천오백돈(噸)인데 현재배급되지못한 삼천돈이외에 다시삼천오백돈이나 모자랄지경이어서이래가지고는 십월월의 정어리잡이는 할수업시될터이라 이것은 업자들의죽구사는문제라고당국에서조속히해결을지어달라는것이다 도시월일일부터 일제히결단되엇다는바 모다성대히 결단식을거행하엿다고한다

까닭이 무엇이던지제자식을 제손으로 죽인다는것은 하늘아래서는 시인할수업는일이다▲그런데『산아제한』까지가 올키아라는 이세상에、돈을모흐려는데 자식이만하서는 귀찬타고 産兒이나 죽여버리에비가잇다▲어느지인종겨들의 인륜이아니라、동양에의의나라 조선에 어떠워 『생명의이단(異端)이 낫스니 기맥히일이다▲세상에무혼죄인녀 미워할것이아니오 죄를 범할것이라 하는말이 잇지만은 이것은 죄인이 죄이될수밧게 업서(터 까닭을동정하는 말이다 ▲먹을래야 먹을것이업고 입힐래야 입힐것이업고 자식을낫는다는것은 곳 세상에 거지의수효를 늘리는데 지내지못한다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애비의사랑으로 죽엿다면 우선 그심정에 동정하고나서 그죄를 꾸지잘만도 하다 ▲그런데 재산이 만여원이 잇는자로 아프로 더 큰 돈을、모흐려는데 자식이만하서는 방해라고、죽엿다는데야 그와 가튼말뻔가 아、고는 동정이갈수업다。▲그나마 징역여섯해쯤을 억울하다고 불복이라니 더 말할나위도 업다。

曆

▲十月九日(月曜日)陰八月二十七日▲干支 己卯▲日出 午前六時三十五分▲日南中午後零時二十一分▲日入午後六時七分▲晝間 十一時三十二分▲月出 午前二時九分▲月入 午後三時三十五分▲滿潮(仁川) 午前一時十分 午後一時四十五分

本町署警務主任 집에『盜賊이야』

부내강기정(岡崎町)칠번지본정서 경무주임집에 도적이 야 본정찰서길천(吉川) 경무주임은 팔일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 가족이전부집을 비여두채일보러외출한틈을 타가지고 어떤자인지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겨울양복네벌 여름양복등은 삼백원어치를 훔처갓다 외출하엿다가 돌아온 길천씨는 깜짝놀라 각서에 수배하고이약을띠는 도적을 잡으려하고잇다

永興郡各警防團結成

【鎭興】함남영흥군 하각경방단도 시월일일부터 일제히결단되엇다는바 모다성대히 결단식을거행하엿다고한다

范油警防團 十月一日結團
德興警防團 〃 十月二日同
鎭坪警防團 〃 十月三日同
仁興警防團 〃 十月三日同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라디오스켓취 ▲六時二五分 ・蘆・弄 ▲六時三五分 修養講話 ▲七時三〇分 피아노獨奏 ▲八時 ... ▲八時三〇分 野談 金▲九時 玄琴散調와併唱▲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과 내일은 개엇다 흐렷다한다

昨日	最高	二三度九
同	最低	一〇度
八日朝	最低	一四度五
同	正午溫度	二二度一

救世軍總司令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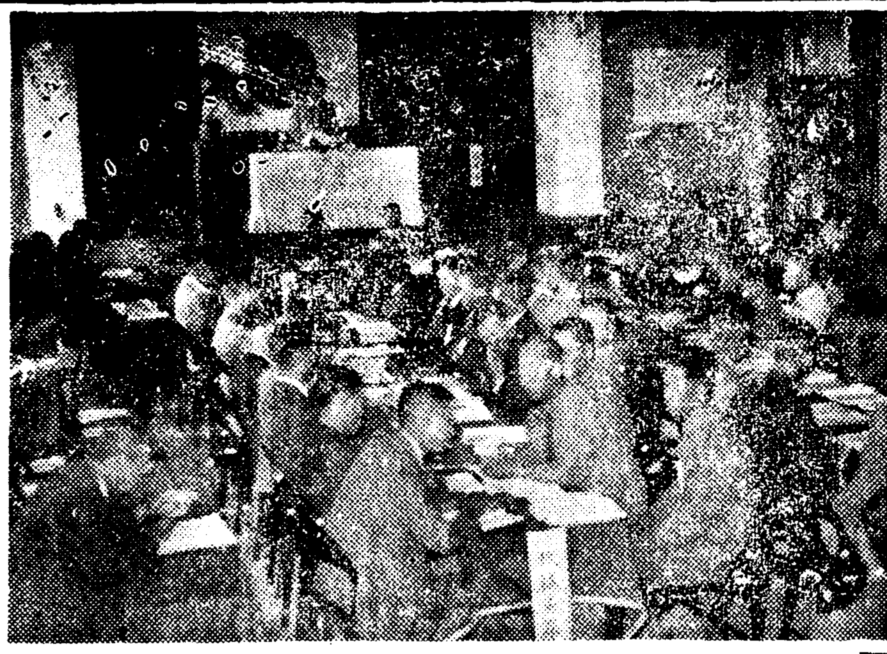
쪼지・카페라大將이被選

【倫敦發同盟郵信】사대째의구세군 총사령관『에반제린・뿌스』대장은 이달말일로서 그만두기가되기때문에 각국사령관이 엄마전부터『타레이푸톤』에 모여서 여러가지로 전형한끄테 요ー금에 겨우 선거를 마치고서『조지카페타』대장이 당선되엇다 전번에는『에봔제린・뿌스』양이 라는 후보자가 나타낫기때문에 다소회의는 노쟁이 잇섯스나이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카렌타』대장이 당선된것이다 이총사령관은 금년에 육십칠세로 호주(濠州)출생이다 이제로부터 사십칠년전에 몸을던저서 구세군에 들어갓는데 인쇄직공으로부터 구세군의 비서로 그뒤 축서 구세군의 중요지위에 참가하여 그뒤 남아메리카 남부총사령관으로서『부에노스・아이레스』에 주재하엿다가 다시『카나다』에 옴겨가서 이날에 이른것이다

工業用地도助成

鰛魚工場二百餘個林立시 실

端川港의一段的飛躍



【咸南支社發】총공비일천오백만원의 거액을 드려서 내외대축항과 이백만여평 공장부지를조성하여 동해안에 웅거하게될대단천기회에 아울러서 또정어리의제조업 중심지로 이단적대비약을하기로 계획이된 경이적대사업이 또다시 출현케 되엇다 함경남도에서는 명년도에 산업항으로서 단천의 대축항을시행케된동시에 그내항(內港)남쪽에 일백십만원을 드려서 동해안제일의어항을 축조하다고하는데이 어항이되는동시에 전번에실시된 입회어구(入會漁區)설정과 함께 정어리어회의 중심지가될것이명확하므로 이어항축조와함께 약육십만평의 용지를 매수하여정차설치될 정어리공장과오박(粕)간장(乾場)으로 분양시킬터이다 이것은 그사업주체가 약유비수산제조조합(鰛油肥水産製造組合)이되어 함남도와 협력하기로되엇다고하는데 육십만평가운대삼십만평은 도기획용지와 포곽(包括)하고 남어지 삼십만평은 전연편히 조합에서 매수하다고한다。이 용지는 어항을 중심으로 두어대리(斗彦臺里)등사개리 판게지주도 일배 오십명에 달하는데 근일중 곳 현지에 출장 하여 매수 하러이다 이것은 입회어구의 설정으로 단천이 어회의 중심지가 될것으로 그것을 예상코저 제조공업의 중심지를 만들기로 된것인데 이용지에는 이백여공장은 넉넉히 수용할수잇도록할터이다 그리고 미리 매수하는 것은 개개공장이 매수하는데 반편이 잇스므로 미리 모다 배수하얏다가 일정하가격으로 분양케할터이다

滿員電車에 매달렷다落傷

면나서리(面州郡西面洛西里)윤무준(尹武俊)의맛딸 재순(在順)(三)이가 제아버지를따라 전차를타려고덤벼들다가 머리와다리에중상을입고 철도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만원전차에 뛰어올라다가떨어저 … 어저 (竹添町)삼정목 이백칠십팔번지 인쇄직공 이룡재(李龍在)(二)라는 사람은 칠일 오후일곱시에 서대문에서 마포(麻浦)로 가는 전차에 뛰어올라 매어달려가다가 죽첨정 삼정목중전 農田)아파트 아페서 떨어저 외편쇄골(鎖骨)이 부러젓다 약한달동안 치료바들 중상이다 그는 문을 닷고 진행하던 만원전차에 뛰

思想報國聯盟 第一回通常大會

新總務李升雨氏推戴

시국대응전조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朝鮮思想報國聯盟)에서는 창립일주년을 마지한 팔일오전아홉시부터 태평통(太平通)체신회관(遞信會館)에서 천도천(川島)조선정신총동원련맹총재(加藤)조선군참모장공모(宮本)법무국장 원(原)고등법원장 하촌(下村)경무국장대리와 내지문부러시원(市原)동경보호관찰소장 팡증(鴈)복강(福岡)보호관찰소장내지사상 전향대표 삼원게일(杉原啓一)씨의열명 맛천조선 보호관찰소대표동여맹간부등 이백여명이 출석하여 행삼(行森)보도판국재하에 제일회통상대회를 열엇다

먼저 궁성요배와 국가봉창전몰장병의 영령에대한 묵도를마친다음법무국장의 고사규약개정부의(附議) 결정한『콤이데르』결의성명 황국신민의 서사봉창등이잇슨후 신총무에 이승우(李升雨)씨를 추대하고 경오가지나서메회하엿다 또한이에게속하여 오후하시부터 부민관에서 시원당중 서해지(西海枝)(關東廳)의서보호관찰소장을 마지하여 강담회를열어 각종의전을 교환하고 오후세시경에 산회하엿다 (사진은 대회광경)

電車에轢傷

팔일오전열한시사십분 노량진에서 동대문으로가는 전차 일백팔십사호를 박재동(朴載東)이운전하여 용산역압정류장에 다오려할때 마침 용산역에서 차를내려 전차를 타려던 상주군서

朝鮮神宮蹴球 第四日

永生은한골差로惜敗

培材、普成決勝에

順天農業의奮鬪歸虛

第壹을다투는 決勝의날을하루압둔 朝鮮神宮蹴球大會의中等及一般準決勝戰은 日氣소차明朗한八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되엇다 熱狂의힘을다하여 諸彌을물리치고 이날의準決勝에臨한中等級의 健兒들은 獻 朝鮮의압날을짊머질만한戰術과 鬪志를 遺憾업시 發揮하여 三千觀衆을 狂喜鬪躍케하엿는데 첫째임인威興永生對 培材戰은 文字그대로 伯仲之勢를 보이며 興味가득찬 激戰끄테 選容永生軍이 한골差로 將捕士軍來를 期約하면서 물러섯다 다음으로 普成中學對順天農業의 캐임이 열린바그戰績은 다음과갓다

【中等校準決勝】

培材 1(1-0 0-0)0 永生

培材對永生戰은 零時七分부터 玄正柱(主) 閔재鎬、朴秉錫(線)三氏審判下에 培材軍의 킥어프로 開始된바 開戰劈頭부터 兩軍은 沈着性잇고 緊張味넘치는 熱戰을展開하여 三分에 培材軍RI反則으로 永生LI金泰鳳킥하여 培材門前에서 混戰을 이루엇스나培材FB陣의 善防으로 絶好한찬스를일코 五分에 培材RI뒤리블하여 들어가다가 LI黃鍾壽에게 패스한께을 永生

RF金以泰의 防禦로無爲、게임은 一進一退로 接戰을 續하다가 十三分에、永生LW金裕鵬이 絶好의 機會에 正確을 缺하여 찬스를 놋치고 말앗다 二十分에 培材RI 姜炳善左側으로 패스한것을 LF金泰鳳 受하엿스나 革左側 一米를隔하여 아웃二十五分까지 兩軍의FW陣의 緊密한連絡과FB陣의堅固한 防禦로 零對零된채 前半을마치엇다

後半三分에、永生右隅蹴을利어RW킥하여 培材門前에서 混戰타가 形勢逆轉하여 五分에 培材LI黃鍾壽의 패스를 RW張大彥의正確한大어로 貴重한一點을 더하엿다 培材軍 一點을리ー드、培材軍鬪志滿滿하여 徹底的FW線의 攻擊으로 右側蹴을利하여 RW의킥으로 永生門前에서 一時亂戰을展開하엿스나 FB陣의 善防으로無爲 五分에 培材軍에게一點을빼앗긴 永生軍은 必死의攻勢로FW陣 反擊하엿스나培材軍의 陣에게完封되어 退却을當하엿다 二十五分까지 永生軍은 비록培材軍에게 五分만에 一點을 빼앗기엇스나 조금도 戰意를 沈滯케하지안코兩軍는 接戰또接戰을展開하여 頑强을 持하더니 一對零으로 永生軍은 長恨을 품엇다 (게임六十分間)

【培材】		【永生】
沈承赫	GK	金禹政
崔大元	RF	金以泰
鄭正模	LF	崔庚山
李炳燮	RH	安承律
李泉春	CH	魏世鉉
朴重根	LH	朴利陽
姜炳善	RW	張大彥
元容瑞	RI	李洪瑞
黃鍾壽	CF	金泰鳳
張大彥	LI	金致國
	LW	金裕鵬

普成 3(1-0 2-0)0 順天

普成中學對順天農業戰은 同午後一時三十分부터 金成玕(主)朴承奎、劉宗烈(線)三氏審判下에 普成킥어프로 開戰되엇다 劈頭를 利어노린 普成軍의 猛攻을받아 順天軍은 五分에 普成RI의 뜻으로 첫골을 빼앗기자 놀래서 不振하더니 前半은 一對零으로 마치고 後半에 들어가 普成二分에 메녀리킥을 利하여 OH의킥으로 또一點을 加하니 防備에만 汲汲한 順天은 大勢가決定된듯하여 五分에 普成RI의메스를 LI바더찻하여 三對零으로 敗退하엿다 (게임六十分間)

【順農】		【普成】
金炳奎	GK	張基彥
崔基春	RF	權寧鉉
崔錫南	LF	金主煥
金鍾根	RH	高麗碧
金炳殷	CH	車炳殷
金喆煥	LH	金鍾洙
申鳳鉉	RW	金鍾讚
尹成鎬	RI	金鍾浩
鄭福來	CF	崔聖坤
金永臣	LI	鄭得坤
徐弘錫	LW	金鶴洙

同德主催의 少女陸上

盛況裡에開幕

同德高女主催의 第六回小學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가을날씨晴朗한、八日午前十時부터 城東同德校庭에서 열리엇다 參加한十八校 百四十餘名少女들의 入場式이잇서 國歌合唱과 皇國臣民의 誓詞齊誦、다음 昌信小學으로 부터 優勝旗와 優勝盃를 返還하고、同大會長 趙東植氏의 開會辭가 잇섯스며 審判長 石原氏의 注意說明이끗난後 選手代表의 宣誓로서 式을 마치고 五十米豫選은로터 競技의幕이열리바 이날 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校庭에는 母校의應援團과 兄父兄들로 사람의성을 쌋흔듯이 超滿員을 이루고잇다 (寫眞은小學校女子陸上大會五十米豫選光景)

【五十米第一豫選】▲第一組1崔明淑(加明)七秒四 2吳順金(昌信)▲第二組1鄭乙水(阿峴女)八秒 2崔慶儀(啓星)八秒一▲第三組1安萬德(和光)七秒六 2李乙分(壽松)七秒八▲第四組1鄭和謨(梅洞)八秒一 2安順三(孝悌)八秒二▲第五組 1曺福實(加明)七秒八 2嚴貞淑(壽松)八秒二▲第六組 1安貞淑(德壽)七秒九 2朴永子(和光)八秒▲第七組 1韓哲玉(德壽)八秒一 2金興順(昌信)八秒二▲第八組 1田貞姬(梅洞)七秒八 2張瑗均(孝悌)▲第九組1金貞娥(同德)七秒 2池福姬(新明)

【百米第一豫選】▲第一組 1潘鍾卿(壽松)一五秒三 2金英順(阿峴女)一五秒四 ▲第二組 1崔明淑(加明)一五秒三 2金常婉(同德)一五秒四 ▲第三組 1吳曾順(昌信)一五秒五 2洪鳳女(啓星)一五秒八 ▲四組 1崔慶儀(啓星)一六秒三 2姜金姬(加明)一五秒四 ▲第五組 1金玉順(同德)一六秒四 2金寅鎬(梅洞)一五秒八▲第六組 1申永淑(和光)一六秒三 2金貞玉(惠化)一六秒四▲第八組 1金玉東(加明)一六秒 2崔英子(阿峴)一六秒二▲第九組 1金貞姬(同德)一五秒四 2金貞淑(德壽)一六秒二

【四百米繼走第一豫選】▲第一組 1梅洞一分三秒六 2昌信一分四秒八 ▲第二組1加明一分二秒二 2啓星一分五秒四 ▲第三組1和光一分四秒二 2德壽一分四秒九

神宮自轉車 各種目覇者

各地의俊銳五十一名이 參加한가운데열린 第十五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自轉車選手權大會第二日은 前日의豫選을거처서 準決勝또는 決勝에臨한 猛將들만인지라 레ー스마다 興味津津한熱戰을演하끄테 다음과가튼 戰績을남기고 終幕을告하엿다

【五千米準決勝】▲一組 1張基奭(鳥致院)八分〇七秒 2權裕洪(大邱)八分一一秒九 3金鋪文(全州)八分三九秒三▲二組 1朴炳富(京城)八分二八秒四 2徐永鎬(利川)八分二八秒六 3尹判文(全州)八分二八秒七

【千米決勝】1金仁燮(京城)一分三三秒五 2金鋪文(全州)一分三四秒3權裕洪(大邱)一分三四秒四

【一萬米決勝】1張基奭(鳥致院)一六分五九秒五 2金仁燮(京城)一七分〇秒五 3徐永鎬(利川)一七分〇二秒一

【五百米決勝】1朴炳寔(京城)四一秒三 2朴龍錫(京城)四一秒七 3柳性熙(京城)四二秒七

【五千米決勝】1張基奭(鳥致院)八分〇五秒 2徐永鎬(利川)八分〇六秒3尹判文(全州)八分六秒三

運動界 人事・集會

▲金達守君(咸興蹴球選手)과史福實孃의結婚式은 十二日午前十一時半壽運花洞敎會堂에서擧行

シンフオニ音樂叢書 村山博著 歌の唄ひ方 定價六十錢〒十錢
古賀正男 ギター敎本 定價一圓五十錢 要先金 振替京城一五九六 京城竹添町一ノ四四 十字社

植木皮膚性病科 院長 植木貴明 京城永樂町二丁目永樂ビル横 本②3567

朝報案內

難治病專門治療法出現 ... 京城府東大門町八 特許漢藥堂藥房

오케ー 上海帰ー幹ー스 李蘭影 滿洲아가씨 金綾子

日鮮書簡文範 定價一圓二〇 送料二二 京城府鍾路二丁目中央書堂書店 振京九二一番

信用本位 淋疾梅毒藥 國境大藥房 安東市一五三 振替京城一五二三三

强性强精藥 早漏

X光線・入院室完備 專門 淋病痔疾 白醫院 京城府鍾路三丁目 電光七五三二

新秋.危險한換節期!

身体의抵抗力을强化하자

今年가치例年에업는 酷暑를지내고 身體의抵抗力이弱해진이때에는 特히注意하지안흐면안됩니다。이換節期에는 赤痢。腸窒扶斯等의무서운傳染病이猖獗하기始作하야 抵抗力이弱해진우리에게 莫大한脅威를줄뿐아니라 여름의消化不良症이 慢性胃腸病으로 呼吸器가弱한분은 結核等重症으로 惡化되기第一쉬운때입니다。

그러나 이時期는 藥効도第一빠른때인즉 하로밧비適當한 强壯劑로써 身體를補强하야 病魔를未然에防止하는것이 무엇보다도 賢明한方策입니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人體에絶對必要한諸種營養素를含有하야 呼吸器를强化하고 消化機能을旺盛히할뿐아니라 身體의諸器官에活力을賦與하야 虛弱體質를恢復하고 病菌의侵入을防止하는等 榮養과藥物의兩作用을 理想的으로發揮하므로 最優秀한强壯劑로서 醫界諸先生의奬推을밧고잇습니다。

(本劑의信用에對하야는 醫師諸賢께問議하여주십시오)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支店・大連・米國羅府・臺北・天津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効果本位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產前産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 中 大

(全國有名藥房販賣)

NZ-9J

石炭의配給減量 低溫生活을勸奬

新義州燃料委員會의消費節約策 六項의實行을積極的으로宣傳

【新義州】금년겨울의 신의주부내석탄(石炭)배급량은 작년에비하여삼할이상의 감소를보게될것이므로 신의주부연료위원회(燃料委員會)에서는 방금 정부책강구에 대분망을 이루고잇는데 한 차기를 일반에게 인식을수 잇도록 소비절약에 대하는동시 실업일 이전에는 소비를 시키지안을 방침으로 다음의안을 세우고 적극적 지도를 하기로되엇다

一、採暖期短縮
二、商店營業時間短縮
三、低溫生活의實施
四、保溫裝置의完備
五、完全燃燒의指導
六、買溜禁止

大田保導會 教育淨化를目標

【忠南文社發】중등학교에잇는 생도, 아동의 교외생활의 보호선도와 교육환경의 정화향상을도모하여 교육이상의실현을 목표하는데전보도회는 부내의 중소학교와 그외사립학교십삼교의교원자를 일원으로하여 요즘그탄생을보앗는데 이에대한역원은다음과갓다

顧問 野口三郎 外二人
理事長 堀內明
副理事長 岡崎爲一
理事 金敎毅外十人
委員 尹相甲外十三人

少年鑛夫壓死 楚山發銀鑛山에서

【新義州】지난사일 오후여섯시쯤 초산군남면중화동(楚山郡南面中和洞)에잇는 발은광산(發銀鑛山) 채굴장에서 일하던갱부 유승룡(劉承龍)(一七)이가 낙반에 따무처서 죽은시체를오일오후세시경에 발굴하엿다

第二區의정어리漁場 城津으로移動!

百六十隻漁船蝟集·食糧難招來

【咸南文社發】동해안 제일이어구의 설정으로 함경남의의 정어리어장은 종내신포(新浦)차호(遮湖)지방이 중심이되던것이단번에 그중심이 이동이되어 목하 제이구의건착어선일백팔십척가운대 일백륙십척은성진(城津)연해에 출어하고잇다 그런대이러케 성진지방에 충집하게되어 성진은 흑심한식량난을 당케되어 유일 제이구의 어선종업원들은 대지급으로 백미일백칠십가마니를 보내게하여 달라고 도수산과장에게 급보를하엿다

수산과에서는 곳장전(長前)의 건착망조합에 그배급을 전청하는등 제이구는 뜻하지안흔 잡답을 보이고잇다

金光拓務大臣 忠南旱害地視察

【忠南文社發】금광(金光)척무대신은 근대히유의 충남한해상황을시찰키위하여 오는팔일오후삼시반 아산둔포(牙山屯浦)에 도착하여 이주교회향에서 진(晋)군수로부터 한해상황의보고를듯고 온양온천시경내에서 일박한후 익일부터 삼일까지 삼일동안 도내의한해상황을 시찰할터이라한다

黃海道糧友會發會

【黃海文社發】황해도에서는 종동부의 절미(節米)정책에 순응하야 도내에 양우회(糧友會)를조직하고 지난칠일오후세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그발회식을 거행하엿는데 동발회식에는 도내각관청의 직원과 민간각방면의 지명인사가 다수참석하엿고 오후네시부터는 무덕전광장에서칠부도미(七分搗米)와 잡곡을혼합한 시식(試食)을겸한 축하연을 개최하엿다

酒造量一割減 大田稅署管內

【忠南文社發】쌀절약이 극도로 고조되고잇스므로 대전세무서에서는 관하일부이군의 각주조업자에게 하여각각 그제조량의 이할을감하하기로 결정하엿는데 이에 서절약되는쌀만도 일백간에 육천삼백석에 달하다고한다

秋夕에就役 一線將兵에慰問袋 大田郡是女職工이

【忠南文社發】대전군시 제사공장(郡是製絲工場)직공 칠백여명은 조선재래의 큰명절인 추석노리를 전폐하고 일제히 취업하여 그로임을수집해서 제일선장병에게 보내는위문대백개를 지난사일 대전부청 시국계(時局係)에 의뢰하여왓는데 이와가티 갸륵스러운 녀직공들의 초심에서울어나온 적성의위문도 잇섯다고한다

作業中山崩으로 人夫九名이死傷

麗水築港工事場에서

【全南文社發】지난 유일오전열시 사십분경에 재작년 부터 오개년계획으로 공사비 구백오십만원의 여수축항 대공사장에서 이부 수십명이 흙을채취작업중 돌연 산흙이 허무러저 두명은 즉사유명은 중상을 당하엿스므로 여수토목출장소(麗水土木出張所)에서는 즉시부상자들을 여수의원(麗水醫院)과 회생의원(回生醫院)에 입원응급 수당을 하는동시에 소관여수경찰서에서는 원인을 조사중이라한다 그러고 또여수항건너편에잇는 돌산도(突山島)공사장에서도 동일오전열시경에 흙이 허므러저 인부한명이 즉사하엿다

義明校의恩人 金鎔鉉氏讚賀

【順安】선교사측의 교육이념문제로인하야 수년간존속불능이란 크다란암초에 걸녀잇던 순안의명(順安義明)학교는 성천(成川) 특지가 김용현(金鎔鉉)(金櫻溪氏父親) 씨를새주인으로 마지하여 그동안 재생의새길을 것고 잇던바 지난 구월이십팔일부로 재단법인 인가까지되어 동교는 물론 평남교육계에 일대명랑보를 던지엇다 이김용현씨의 미거의결과가 잘못 큰것을보게된 순안사회에서는 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찬하회를 개최키로 예정인데 지난 유일 순안면회의실에 면내유지삼십여명이 회합하여 좌기사항을 토의하고 산회하엿다

一、義明學校財團法人認可祝賀의件
二、特志家金鎔鉉氏에게記念品贈呈의件
三、昇格에對한具體的運動開始의件
四、祝賀會는同校開校記念日인十月十日에舉行할것

楓嶽의金剛山! 廿五日頃이絶好時期

千紫萬紅에千客萬來의盛況

【外金剛】가을의 금강산! 단풍의금강산은 그야말로 절경(絕景)이다 특히 작년부터 탐방도로가 개설된 외금강세존봉(世尊峰)개곡의 단풍빛은 그야말로 천자만홍(千紫萬紅)우리의 채편념으로서는 도저히 형용할수업는 색채의세계다 이단풍의 금강산을 보려고 모여드는 탐승객은 지금한여시 만라 그러나 아직 유감인것은 단풍이다 들지 못한것이다 하루하루단풍들어가는 단풍은 아마도 이십오일경에야 완전한 제비를 보여줄것같다 탐승의 시절도 이십일이후약십일간이 가장적절할것이다

林道를開設 靑陽、保寧에서

【忠南文社發】충청남도에서는임산자원의 확보를 기하는일방 노동자소를 목적하는 한해대책의 용토사업으로 충풍비오만오천원으로 청양군(靑陽郡)대치면(大峙面)으로부터 적곡면(赤谷面)에 이르는 연장일만팔천메돌의 갑사림도(甲山林道)와 보령군 미산면(保寧郡嵋山面)과 부여군 외산면(扶餘郡外山面)의연장일천육백여미돌의 성주산(聖住山)림도를각각 개설키로하고 이미 공사에 착수하야 명년삼월까지 준공할터인데 이재 이기정계회에서 사방사업시공개소를 확장하야 각리재민을 구재코저 면적오백팔십여정보를 확장하야 십삼만육천원으로 구군십칠면에 실시할려이라한다

萬壽小學運動會

【平南文社發】평양만수공립심상소학교(萬壽小學)에서는 오는십일일 오전여덜시부터 부내기림리(箕林里)공설운동장에서 추기대운동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의내관을 환영한다고한다

府郡內務課長會議 平南道로서米價問題를討議

【平南文社發】백미공정가격의주지철저와 미곡문제에대한 도의 최고방침을 지시키위하여 평안남도에서는 임시부윤 군수회의를 개최키로되엇다함은 기보한바와가거니와 그후 부, 군내무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변경하고 칠일오전아홉시부터 도회의실에서 석전(石田)지사이하 삼부장각관계과장 각부군내무과장급 주가부 편람를 십개군각경찰서의 경제경찰직원의 출석으로 개최되엇는데 오는십일부터실시되는 백미공정가격에관한 진금 평안남도 백미배급 문제에관한것을부의 도당국의 최고방침을 지시하고 비공개로서 중대협의가잇섯다

善行者表彰式

【平南文社發】지난십삼일부터 실시중에잇는 총후보국강조주간의 최종일인 구월이십일부터 도회의실에서 도내의 선행자표창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東西兩軍이對戰 野外大演習盛況

載寧中心으로實戰彷彿

【載寧】재령의 명중(明中)안악의안중(安中)신천의농민(農民) 장연의 간농(簡農)과 재령 안악 신천 장연의 각청년훈련소를 일단으로하여 서군(西軍)으로편성하고 사리원의 농업(農業)겸이포의 간농(簡農)서흥 남천의 간농(簡農)등교와및 그곳의 각청년훈련소원을 일단으로하여 동군(東軍)으로 편성한후 연합야외대연습(野外大演習)을 거행키로되엇다함은 기보한사실이거니와지난유일오후대시경 서군의 대부대삼천여명은 재령읍에 집결하자 날카로운 공세로 재령을향하여 진군하여오는 동군부대가 봉산서종(鳳山西鍾)에 행군하고잇다는첩보가잇자 서군의 각부대는 시간을드리지안코 행군을 개시하여 오후여섯시경 재령평야 상해여부근에서 양군의조우(遭遇)대격전이 전개되어 오후열시경까지 기관총 소총등의소리는 은은히들려왓다

제이회전은 재령읍부산박록에서 전개되엿는데 때는다음날오전세시경 공세로 달려드는 동군과 수세로서항하는서군 무려오천여명의 씩씩한군사의행동은실로 관중으로하여금 실전의느낌을 주엇다

가튼날오전열시 양군연합입석식을비롯하여 본도지사대리내무부장의 시열식(視閱式)이 끗난후 서황리에 폐막되엇다

南船北馬

만주국철도총국에서는 『다이야』개정을하게되엇는동시에 열차식당의 『써-비쓰』도강화하여 요리로흥아일색(興亞一色)으로 하기위하여 철도총국제이회의실에서 야간(野間)여객과장을 비롯하여 안전(安田)식당자주임이하 각영업소주임이 모여 협의한결과 『시국에흥해서 양주를대신하고 식『도앗식은 되도록피하시하는한편 만식(滿食)『러시아』풍시설하여 여객의여정(旅情)을 흥아기분에 잠기도록 하기로되엿다한다(奉天)

長篇探偵小說 魔人 【169】

金來成 作
崔術朗 畵

探偵廢業 (一)

『유불란씨, 대체 이게 어떠케 된일이요?……』

『이 쫑가튼 사실을 대체 어떠케 설명해야 되오?……』

이것은 아까『레-불』을 둘러차고 마주 안즈면서부터 임경부와 백문호씨가 연해하는 질문이엇스나 유불란은 다만 어두운 얼굴비츠로 들창밧의 밤거리를 묵묵히 나려다보고잇슬뿐이더니, 그러나 어제까지나 그러케 잠잣고 잇슬수도 업서서 비로소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열엇다.

『사건이 이처럼 진전될때로 진전한 지금에 이르러서 무엇을 새삼스러히 설명해드릴 필요가 업습니다만――』

하고, 사건의 진전을 미리 조처하지못한 자기를 기피 뉘우치면서

『그러나 하여튼 제가 아는데까지는 설명해드리리다 모를것이 잇스면 질문해주시요』

하고 그는 아모런감흥도 느끼지 안는드시 상대자를 처다 보앗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제밤 명수대에서 살해를 당한 주은봉과 오늘밤 자살을 한 주은봉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요.』

하는것은 임경부엿다.

『네――실상 사실을 모르고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밧게 말할수 업지요. 그러나 어제밤 명수대에서 살해를 당한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주은봉이 아닙니다!』

『뭐요?……주은봉이 아니라구요?……』

임경부와 백문호씨의 놀라움은 형언할수 업시 컷다.

『그럿습니다! 주은봉이 아닙니다. 장님 박영태의 안해 에쁜입니다!』

『엣?……에쁜이?……』

박안이 터저나갈듯한 백문호씨의 고함소리엇다.

『아니 에쁜이라니……그게 대체 무슨 말슴……』

그때 유불란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엿다.

『백선생 거듭 놀라지 마십시요. ――주은봉과 에쁜이는 쌍동이 올시다!』

『쌍동이?……』

『두분이 다 백선생의 따님――삼십년전 엄여분이가 나흔 따님입니다.』

『오오――주여!』

늙은 백문호씨는 흙비가튼얼굴비츠로 변하면서 두손을 가슴아페 합장하엿다.

『이 늙은이에게 무슨 죄가 잇기로서니 이런 참혹한 벌을 주십니까?……』

유불란은 차마 백문호씨의 그 비참한 얼굴을 볼수업서 시선을 임경부께로 돌렷다.

『어제 아침 ×천읍에서 나는 홍서방의 벙어리 딸과의 밀담으로서 이 사실을 알앗지요. 쌍동이를 한집에서 길르면 화가 미친다는 ×천읍의 미신으로 여분의 어머니는 작근딸 에쁜이는 홍서방의 처에게 맛겨서 고향을 떠나 평양에 올어와 살게하고 자기는 큰딸 은봉을 데리고 신의주 주택서의 집에서 길럿던것입니다. 에쁜이는 홍서방의딸과 서울 맹아학원엘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 박영태에게로 시집을 오고……』

『그러면 은봉과 에쁜이를 바꾸어논것은 오상억?……』

하고 뭇는 임경부에게

『그럿습니다. 그리고 에쁜이를 죽인것도 오상억이지요.』

『옴――문화수에게 주홍빗 만도를 씨워노코 죽인것도 오상억 자신이로구먼요!』

『올흔 그럿습니다. 그때 임경부께서 이층으로 전화를 바드러 올라간후의 일어난 일――즉 오상억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전연 거짓말이지요. 아니, 거짓말이라는것보다도 오상억 자신과 문화수의 입장을 어바꾸어서 한 이야기입니다.――어째 그러냐하면 나는 그 전날밤 여행을 떠나면서 임경부께 전화를 걸어 은봉을 감시하라는 말을 전하는 한편 문화수씨에게도 오상억을 잘 감시하라는 편지를 떼웟지요. 그러니까 생각컨데 문화수씨는 오상억의 신변으로부터 일분일초도 감시의 눈을 겨울리하지 안헛슬것만은 틀림업는사실입니다. 그러면 임경부께서 이층으로 전화를 바드러 올라간후 아래층 침실에서 무슨일이 일어낫는가는 그때 오상억의 입으로부터 나온이야기를 정반대로설명하면 그만이지요. 즉 먼저 침실을 나와 현관으로 나가서스위치를 끈려논것은 문화수씨가아니고 오상억 자신이엇습니다. 문화수씨는 두말도할것업시 곳 오상억의 뒤를 따랏시요. 감감한 암흑――그때는 벌써오상억의손에는 권총이 쥐여젓섯고 그의 몸에는 해월의 가장이 씨워저잇섯습니다. 오상억은 정원쪽들창으로 다시침실로 넘어들어가서 은봉의 가슴에다 칼을 꼿고 다시 현관으로빠저서 정문밧까지 문화수씨를 끌고나와 거기서 따라오든 문화수씨를 쏘앗지요. 그리고 자기의 만또를 씨워노코 그의 손에는 권총을쥐어주엇던것입니다. ――그러나그때 침대에 누어잇던것은 벌써은봉이 아니고 에쁜이엇지요.』

『아, 그러타!』

하고 그순간 임경부는 고함을첫다.

『오상억이가 은봉과 에쁜이를 바꾸어논것은 그때 엇구나! ――우리들은 그날저녁, 삼청동에서 명수대로 은봉이 갓는데 압선택시―에는 은봉과 오상억이가타고 뒤선 서봉자동차에는 문화수씨와 내가타섯지요. 은봉은 삼청동을 떠날때부터 혀기증이 난다고 『택시―』에 올을때도 오상억의 부축을 바덧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동차가 남대문을지다다랏을때 중요중거도 『교오스―』의 『씨그날』로 말미아마 그들의 『택시―』는 먼저 지나가고 우리는 자동차를 정지햇다가 다시 따라갓을때는 벌써 오상억의 『택시―』는 세브란스병원아페 스톱스톱 달리고 잇섯는데 은봉과 에쁜이가 바뀌어진것은 그때엇군요! 글세 거기서부터 은봉은 현기증이 심하다고 오상억의 어깨에 몸을 기대이고 풍운을 뜨적이 업섯지요. 『택시―』에서 나릴때도 오상억이가 안고 침실까지 옮겨노핫습니다. 옴――』

임경부는 팻심스럽게 푸르락거렷다.

『그럿습니다. 남대문과 세브란스병원 사이에서 오상억은 운전수에게 은봉을 청운정 자하문 고개아래까지 모저드리라는 말을 남겨노코 자기는 『택시―』를 나리지요. 그러고 그때 그여플 스톱스톱지나가는 다른 『택시―』에 올라탓습니다. 그 『택시―』속에는 은봉과 꼭가튼 흑장(黑裝)의 양복을 입은 에쁜이가 마취약에 정신을 일코 쓰러저잇섯습니다. 이것은 은봉의 유서를보고 알엇습니다만은 그때 그『택시―』의 운전수가 저신구던 이빨을 가진 오청지엇지요.』

『뭐, 오청지?……』

그때까지 정신업시 안저잇던 백문호씨가 웨첫다.

『네에, ―혜성전문학교 교강 황세민씨의 어두운 과거를 미끼로 거마리처럼 따라다니던 오청지! 평안북도 S읍에서 백정노릇을 하던 오만복(吳萬福)! 악마의 제자 오상억의 아버지!』

『오청지가 오상억의 아버지라구요?!』

거듭 놀래는 백문호씨에게

『그럿습니다. 저번날 박, 백선생에게 그의 이름이 오청지라는 말을 듯고 혹시 오상억과 무슨 관계가 업는가하고 곳 오상억의 고향 S읍 주재소에 조회를 하여보앗더니 과연 얼굴에 칼찌리가 잇고 신꾸런 이빨을 가진 오상억의 아버지가 이십년전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렷다는 보고가 잇섯습니다.』

『음――그랫든가!』

임경부와 백문호씨는 모두가 꿈과가튼 사실에 그저 경탄의 눈을 부릅뜰 뿐이엇다.

『그런데 오상억이가 은봉의복수에 가치 참가한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그는 처음부터 은봉과 행동을 가치햇다는 말이요?……』

하고 임경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엿다.

淋疾 葡萄狀球菌 連鎖狀球菌
最高級新化學療法劑

ナラゲン錠

NH_2 ⬡ SO_2NH ⬡ $SO_2N(CH_3)_2$

淋疾

從來淋疾藥으로서 市場에販賣되고잇든 賣藥 (大部分은賣藥)은・ 白檀油 ・ウワウルシ 製劑 ・色素製劑淋菌 외꾸친製劑 ・ 銀製劑等 ・ 그種類는非常한數에오르고 ・ 各各相當한効果를發揮하고잇섯든것이나 ・ 그어느것이나淋疾을根治함에이르러서는 ・ 前途遼遠한바가잇습니다 ・ 그런데淋疾治療界에慧星과가티出現한『스루폰아미도』製劑는淋菌에對하여特異한選擇的殺菌作用이잇서『不治의病』이라고하던淋疾을거이百%까지完治하는驚異的成功을收得하고 ・ 治淋界에一大革命을齎來한것입니다。方今世界的으로이的確한効力이確認되여 ・從來豫想도못하든・ 効力을奏하는事實에잇서서는 ・ 벌써누구도否定치못함은勿論六〇六號『사루바루산』以來의大發見이라고賞讚을博하고잇는것입니다・本劑『ナラゲン錠』은頑固慢性淋疾에對하여一層峻烈한殺菌作用을逞하고또한副作用업는스루폰아미드二基로써 調劑해서・世間의淋疾患者에對하여絕對自信을가지고推薦하는바입니다

代理店・京城・木村藥房・森川回天堂 仁川・北島藥店 平壤・森田藥房 釜山・大黑南海堂・藤田藥舖

全快者感謝狀殺到

本社 奈良大軌線八木町
京城府櫻井町二丁目

全鮮有名藥店에잇습니다

興亞化學研究所朝鮮宣傳部

詳細說明의文獻進呈新聞名記入申込해주시요

販賣小賣店募集 (有資格者에限함)

價格―二〇錠入 金二圓八十錢 五〇錠入 金六圓
用法―三日間服藥 四日目休藥 一週間標準藥 一回二錠―三錠乃至一日三回服用
適應症―淋病・丹毒・敗血症・産褥熱等々

九日封切

清水宏 作品
田中絹代 三宅邦子 川崎弘子 水戸光子 春日英子 高倉彰 上原謙

桑の実は紅い

女のみの歩む人生行路
女のみが知る情愛
女のみが持つ哀愁

四人の復讐

南米、支那、印度、バルカン、と延びる國際武器密賣團の魔手!!正義人道の爲に蹶然と起つた四人の兄弟が決死の活躍!!

巨匠 ジョン・フォード監督
リチャード・グリーン ロレッタ・ヤング 主演

午前十時廿分開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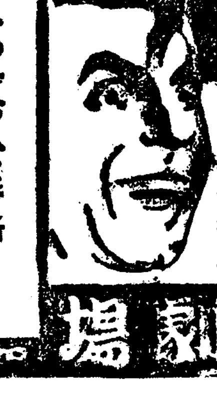
明治座

九日ヨリ

松竹大船 異色文藝篇!!

花ある雑草

懐しい小學校の想ひ出!想ひ出の校庭!長閑な田舍の風景の中に描かれた先生と生徒の心と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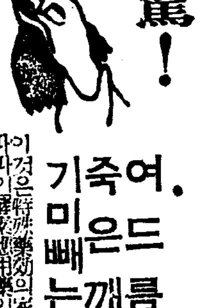


アメリカの人氣者カンターがメリイゴウランドでギャングと散々暴れ廻る歌と踊りと音樂とスリルの傑作喜劇

エディ・カンター 主演
エセル・マーマン サリイ・アイラース 助演
ノーマン・タウログ 監督

大陸劇場

勿驚!



여드름. 주근깨 기미 빼는

アモンパパヤ

藥用크림-무-專賣特許

東京市神田區 株式會社 杉田商店

書籍目錄 無代進呈

辭書 法律 化學 工業 受驗 就職 農業 醫療 其他圖書でもありハガキ申込次第送呈す

大阪市東淀川局區內 國民書院

本報江陵支局電話開通 江陵 二二六番

外科 皮膚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府樂園町一三八
電光二四五二

八院室全部独房 暖房及冷房完全

性器及皮膚整形手術每日施行
徽毒檢査及根治療法隨時應酬

舞臺面改裝完成記念として待望の名畫祭

九日封切

吉屋信子女史原作 東寶映畫總動員特作
大阪毎日新聞連載
代表作 阿部豐演出
主題歌 ビクターレコード

限りなき有情を誓つた七つの倶が戀の爲めに、家庭のために、そして醫學の爲めに、生活のために美しい女の友情が多彩のうちに綴る

女の教室

主演
千葉早智子 竹久千恵子 霧立のぼる 神田千鶴子 椿澄枝 里見藍子 原節子 花井蘭子 月田一郎 佐伯秀男

東寶

心の花

美しき星

R K O RADIO PICTURES

カザリン・ヘップバーン ケイリー・グラント 主演

赤ちゃん教育

若草東寶映畫劇場

記…… 學窓通信

東京日本美術學校 趙五將

K兄!

이것이 세번째로보내는 내東京生活의루―포르―타―쥬이요。요즘 氣候는제법 가을인듯키 서늘해졋소。그곳은 지금도 더웁다구들 말하오? 아직도 그러케말할수잇다면 새로운氣候와 風土에對한긔이생겨저야할지도모르리오。

★……★

며칠전 이곳의新聞들은『프로이드』博士의別世를 알리엿소。精神分析學의原祖 그가가지고잇던 남긔로운 人類史上의남긴 精神(心理)文化에對한 深遠한學究態度 그리고 오늘날 超現實主義的藝術運動에게 주貢獻, 그것에누구가否定하고 업수이여길수잇을것인가。

純粹民族을擁護한다는 多血兒히틀러―의말하기어려운 겔만種族의뚝뚝(?)한政策은 二十世紀의碩學者 프로이드博士까지를 刑罰에올려 國外追放의따찌를부쳣다。

참기어려운 世紀의悲劇이여―

知識人의머리에서 書齋에서 哀悼의吊文이흐르는듯 아깝다 東京에서 唯一한大槻憲三氏의 主宰하는 프로이드硏究所에서는 이번에追悼號가나올것이고 〃고호〃의『나추랄니즘』을中心으로 繪畵의精神分析學을硏究하는式場博士도 붓을들어그의죽엄을아깝다할것이오。철부지나에게도 어딘지 마음이허전해진것갓소。

★……★

九月二十九日

이날 어느『타·파아리』席上에서 이곳 美術論壇의 知的新銳 瀧口修造氏를 만낫다。그가가진 가방에서 내보이는 몃가지 新刊은 怠慢한 나의 頭腦를 서슴지안코 나려부신다。

四六四倍判의 豪華로운 體裁안에 실려진 二百餘枚의原色版은 말할수업는 飮料물咽晩에 滿해젓다。何優滿特輯號에는『다빗트』『라파엘』『프라재리코』『꽃재리』뒤니여當代의 寫眞大家『가찌근』『보오드넬』『베하―』等의 꽃꽃내 魅力을 느끼는 寫眞版이 느어잇다。아마 이冊은 日本唯一의 貴重한것인지도 모른다。定價가 一〇、〇〇弗이고보니 좀채로는 손대기어렵다 이冊을보고 나는 한번더 恰悧해질 資格을 어덧다。

AVEV Nos5―8 Tilley Octerben―1000弗

또하나는DIE FORM Paris版(價格은 잘모르겟다)四六倍版의 스마―트한프라쏘리한 美麗스런 表紙가 먼저눈을끈다。兒童心理를 繪畵精神乃至心理에서 차즈려는 即 作畵知能과技巧를通해兒童心理를把握하기위한硏究(Magazine)이다 색조이로만든『파피코렉』(꽃처그린그림)데상이마―쥬를通해表現시킨크래용과畵等…興味잇는그림이 다시敎育을 주는이고맙다。

◇……◇

젊은畵家들이오면서 氏는오늘날 靑年畵家들의 追究意識과 現實意識에 對한몃가지를 暗示的으로 批判하고 歐洲大戰과 畵壇動向에 이르러―다시畵家의內的敗衰을 말해들려준다。日本橋에서 銀座로 銀座서新宿까지 이러한 이야기속에서 通過햇다。

車를내릴때 나는氏에게 懇談會를열어다시 들어맛겟노라約束하고 헤젓다。이날 나는아름다운 福地의賓客처럼 聖스러웟다。

◇……◇

K兄! 벌써枚數가넘첫소 다시다음機會에 계속해 적어보리다。그럼가을의 季節을 記念하기게르지맙시다 이만

特"急亞細亞"
―滿洲紀行―

城大醫學部 李東薰

젊은大陸

!『羊의떼』를 모든 어린애의 붉은 얼굴은 曠野의 地平線을 바라보며 집馬車를탄흔은 露人은 좋며 말는길까의 풀을뜻는 曠野의 地平線을넘는 赤銅色의 夕陽。蒸濁한曠野는 끈질줄을모르고 밤옷을입고만다『호렐』의『작롱』과가든 華麗한列車食堂。日本語와 滿洲語에 能達한 端麗하고 聰明히보이는露孃의『차―비스』아페안즌흰의西洋人은『커펠』를들고 黃昏의地平線을바라본다。豪華한滿人의 손말을하는지 암사람과 떠들고 잇다。世界의特急『亞細亞』大陸을旅行하는사람에 업서안될『亞細亞』다。

아홉시가넘으니『코스모포리탄 시티―할빈』에닷는다『할빈』은 蒙古말이며 草甸平地멀리바라보면 哈刺(織物)과갓다하여 哈爾賓이되고 드디어 哈爾濱이되엇다。예날는 松花江의帆船과 淺木의 寄泊하던荒寥한 村落이엿스나 一八九七年露國에 租되어 歐風의大都市가 出現되어露人以外에는 居住케못하던 新市街의住宅地、滿人의거리傳家甸、商業이 隆盛한埠頭街의『키다이스야街』는『할빈』의『銀座』다 街路의『벤취』에안즌 어린이아들다린 露國老人。老人마다 中央寺院아플지날때마다 가슴에十字를그린다。

그러나 靑年男女들은 본체만체하며지나가기도한다。쉬엿이 긴 뭬지洋服을 입은늙은거랑이。맨발로뛰어다니는어린애。『키다이스야街』와『馬家溝』에는

露國情緒

가 그냥남어잇다。異國情緒를 차자 彷徨하는 現代人은 요사이『모스크바』를 차즈면안될것이다。『할빈』이곳이야『예조프』한무엇을가지고 그들로하여금欣喜케할것이다。내가數年前에 갓든復活祭의밤。지나간十九世紀 露國文學의 一面을가지고『푸―리스트』를 幻惑하는것이다。哈爾濱을、그곳의一面을보고秩序가 업고、드러운、文化가淸止된敗祉라고評할는지모를수잇겟지。그러나 松花江의『太陽島』의풍후에 안저『키라이스야街』를 散策하며 露人파接觸하며、그苦悶氣에잠기여 味覺을맛보며彷徨하면現代文化와隔離된것가튼 이곳에서 만 情趣를차즐수잇슬것이다。

孤獨한數日이지나、어느날知人과『太陽島』水泳場에나가『옷트하우스』에 안저술마실때 어느露人宅을紹介바덧다、『옷트』를 가치타면술거허늘懷舊가잇섯다。上海서 자라낫다는 어린P孃은英語로이러말처럼말하다가、

『나는露西亞人이지、蘇聯人은아니야』

라는것을듯고놀라는바 잇섯다 祖父는『모스크바』에잇스나 消息도모룰다는것이다。

特急券을

늘 滿員이되는 特急券을 빨리사두엇다가 또〃亞細亞〃를 탄다。압헤안즌 西洋人은나에게『東京으로가나고』英語로뭇는다 나는그의손에쥐인 獨逸책을보고 獨逸말로 新京에갓다가 京城으로간다 고하니 자기나라말에놀랏는지、웃으면서 自己는大連으로간다는것이다。汽車의椅子가조타고하드니 獨逸山岳을 칭찬한다。〃朝鮮金剛山은〃쉥〃이라하면서。新京서、君과握手를하고나오니、哈爾濱의 露國的인데對하여 新京의日本的情趣에놀란다。大同大街를끼고나가니、東洋風을 加味한 近代的快適한 官廳建物이 數킬로를새두고 雄姿를나타내끈한다。民生部를지나니、벌써郊外가되고、낙시군을떼어가니『南湖』에다다。〃新京을 둘게여지요〃하는울이은 老人에 물쭉을 드러다보면서말한다。南湖의 저쪽에는 建設中의『建國廟』가잇고、未來의 帝都의學園이될 散亂地이잇다。郊外도떠러지면、樹木가오며、봄으면、프른비치 木橋가 散在하여、荒漠한感을더욱 쓸하게한다。그들은 士葬은드물고、火葬은全然업는것이다。能長春市街〃城內〃로馬車를타고 물어가면 舊城의『舊國風』의거리가 나타나며、〃저코―든〃를듯는사람이 산떼미처럼서잇다。크다란 孔子廟만은 깨끗이되어잇다。그리고이곳에서처음〃라마敎〃를알수잇섯다다시城外로나오니

公園에나

오것가치爽快하여진다 다시馬車를 집어타고 大同公園에 이르니 池上에는 數만흔『보―트』가떠잇고 色다른 젊은 女性의 衣服의 빗과 모양이 對照된다

男子들은『카―키』빗의 協和服을 입고 잇고 萬若 그가 어느나라사람인가를 알려면 그사람이『아베』한女性을보면엇것이다 民族의協和 이것이建國의理想이다。

寶山『데파―트』屋上喫茶店에 안자 멀리바라보니 起伏하는道路는 멀리曠野로 消失되며 들너산들은 荒漠히보인다 이景致에醉하여 나는언제까지든지 闕下에 지다기여잇섯다。

大陸! 이말은 나에게 限업는 魅惑을주는것이다。

京城에서 生活이 退屈하여지면 나는大陸의 曠野를꿈군다。그러면 나는 限업는 野心과 情熱에躍動된다。

소낙비오는十月夜

中央佛專 金光一

애비업는 울음에
몸부림이라도 날듯한밤!
소낙비는 구슬을 안고 나려지는데―
뒷개울에 오래 머젓던 물소리 도론거리나
오!이밤은 홀로 無主鬼처럼 외로워라。
내 고은 나래를가진 나비되어
똑똑 떠러지는 밤비속에 뛰여들까나!
그러면 밤비는 내살은 가슴과 나래를 조하라고
부서주리라。
가을아! 밤비내리는 가을아!
원컨대 무더무더으로 구슬비를 내려다오!
내몸은 사로죽고 죽은다음
『나』는 꼿을 사랑하는 꼿과 함께
나비 나비 魂되어
어느 복사꼿 만히피는 港口로 가자!

隨筆 가을밤과부두

城津商業 李淑

히고새파라코 차디찬달이다。산산히또더버린 솜조각가튼구름사이로 매운눈초리에 요기찬비조로 냉정히 地球를 살피는달이다。

여런달비츨안고 부두는 고요히 곤히잠들엇다。

물우에 만산한 달비츤 거울처럼 번쩍거린다。물결하나하나가 번쩍거린다。수만수억에 물결이 너풀거리며 번쩍거린다。

―○―

파도가 바파데뿜씻고 깨어진다。물방울 방울에 달비치 실리워진다。쏴아―파도는 또아우성치며 물을뿜고 쓸어온다。철석하는 단맛에 부르즈질을 남기고는 부서질것을 부서지는 파도에 뺏틀이 옷축한다 배도 잘들엇다。

그까진 물결에엔 끈히잠든배가 잠상실지도안타 파도가부서진후에 바다는 일층더 적막을가한다。

오뚝오뚝 부두에선 가등도 졸리는지 묵묵하다。

머리칼이 부서는듯 청징포를 느끼게하는 요기찬 바다우 누가부는지 퉁주소리가 은은히 넓게흐려진다。

고음이。적용으로 처음이고 울음으로― 크게들리다 간신히 들리다 또커젓다 멀어지게는 리듬을 마치……

―○―

요정들이다 수십명이 원을 지여 둘러안젓다。

그들은 세상에업는 이상스런 기괴한 소리를한다。

귀가 머리보다 더큰요물이 기다란 손까락을벌리고 원중앙에서 옷줄거리며 춤춘다。산이나게춘다。

달비치 귀에비치어서 다리룰들때마다 귀가쫑깃쫑깃하지기미보인다。그뒤에서서 입이 가로찌진요물이 영희배우 봐라운보다 배나더큰입에다 퉁소를물고 멋이틀어분다。

쏴아철석하는 파도는 드디어 요물에환영을지워버린다。

하늘엔 여전히 새파란달이 또고 바다는 달그림자가번쩍인다。기리사신화가 실현될듯시픈 신비한밤이다。

퉁소소리가 잠시그첫다。다시들린다。

―○―

눈에매친 물방울을씻처버리고 나그네는 다시퉁소를부는지도 모른겟다。애수가적긴퉁소소리 고향을그린 사나이에 애끈는하소다。어디선가 음음하는 잠이석긴 사공의잠고대가 밤공기를 흔들어놋는다。

수염이 허연사공이다。그는 널판대기우에 옷통을벗고 누엇스리라。달달말린 이불짜락을 쓸어안고 잠을청한다。아니꿈을청한다。귀여운 아들딸손자 그득이 모여안저 깁이를드는오르는 감자를떼겨먹는꿈이지?

고향꿈을 꾸어보라고 애타는 늙은사공에 버개는 향수에 저젓을께다。『으음』하는 잠고대가 아까운 반대쪽에서 또들린다。적동색얼굴이다 쾌활한우슴이 얼굴에 하나가득 괴엇다。

적동색팔이다。가슴이다。근육이。빨긋빨긋 소사올라 젊음을 자랑한다 그힘은 큰배를 수평선을향해서 쉽사리 배머리를 돌려놋는다 뜻소리를항구로보내며 쑈살처럼 착파를 헤치고 저어나간다。이가치도 씩씩한 젊은사공들도 한밤에 달이또고 별이나오면 치르감은 눈까죽에 두고온 시악씨 얼굴이떠올라서 작은이루고이리고 저리굴며 등장엔 떨방울까지도 배처인나。모두가 작난이다。가을이란놈에……。

―○―

그물에걸린 정어리를 뜨더내는 여인네들에 웃음소리와 고기를 실어내는우차『오토바이』의 잡음에 콧노래를 반주로 산떼미를 만드는 정어리라도 갓조소리든등으로 북적거리든 부두로―

쾌지나칭칭나네 벌어술때먹구놀자 쾌지나칭칭나네 하며 사공들은 허까부러진 소리로 뭉처저서 춤을추며『大漁』라고밤은 기름밧고 개선장군기분이나서 불야성을두드린다。

한손에는 술병목아지가 쥐이고 또한손엔 하나오(ハナオ)가 끈허진 게다짝이 뎅글거린다。그러든그이들도― 고기때가 끈허지고 그물이전당포출입이 자저지면 부두도사람도 잠잠해진다。잠이든다。아니다。꿈을청한다。어것이 항구푸로될이 아니냐?

퉁소는 끄치고야 말엇다。

나그네도 잠이든모양이다。

밤이기퍼가고―달은밝어가고―가을은 허미해가고―

哲學大講演會

演士演題

都市의社會的特質 城大敎授 秋葉隆 氏

哲學의統一原理 佛專敎授 金斗憲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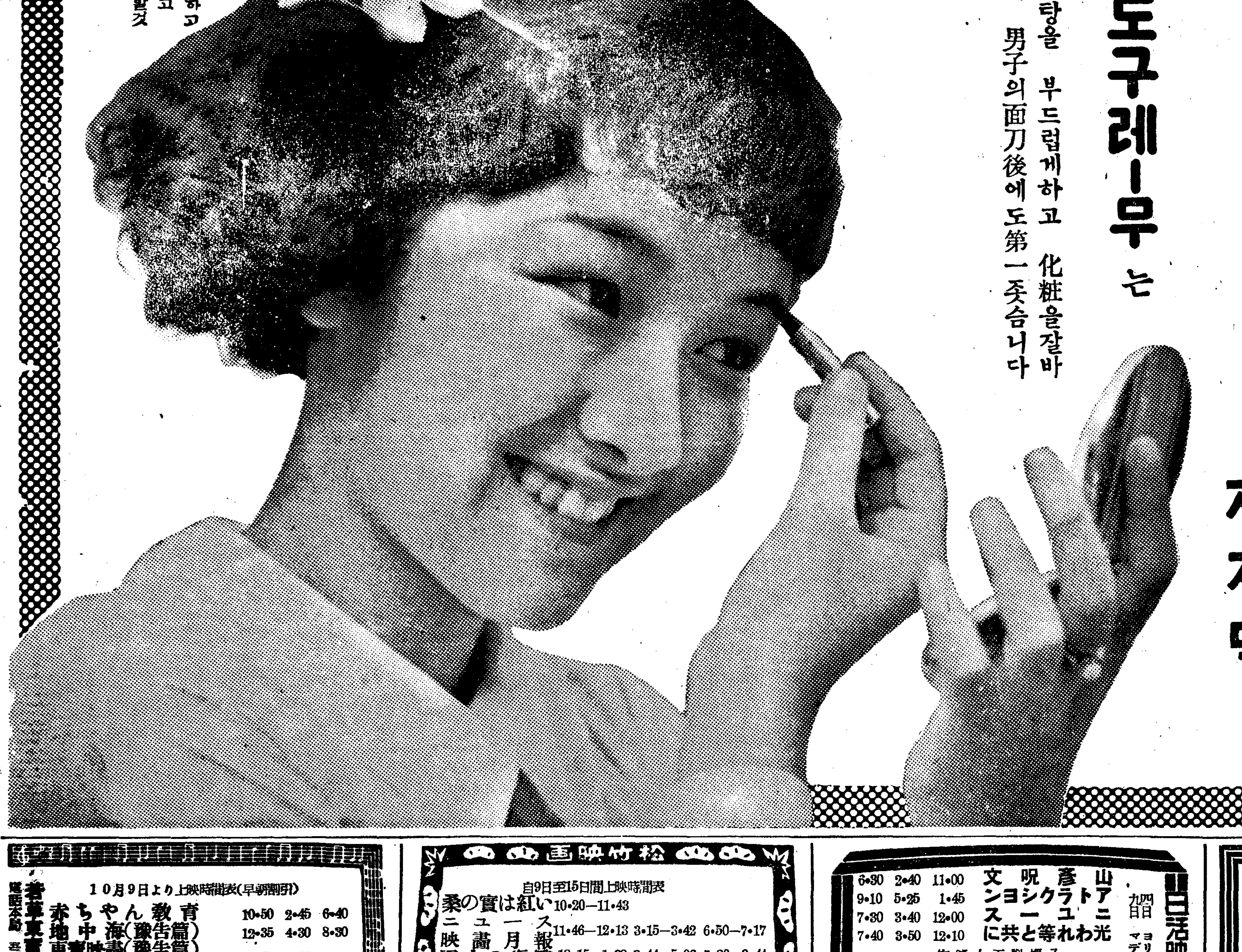
▽…十一日(水)午後七時·於本社講堂…△

主催 中央佛專學生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홀짝반할만치 아름다운살결이됩니다!

레―도구레―무는 世界에第一조흔品質 第一굉장한効果를 가지고잇는 훌융한化粧品이올시다

레―도구레―무는 잔주름을업새고 거치러운살결을 부드러웁게 아름답게함으로 大評判입니다

레―도구레―무는 살바탕을 부드럽게하고 化粧을잘바드며 男子의面刀後에도第一좃슴니다

一、살결을아름다웁게하고
二、化粧바탕을조케하고
三、面刀後에꼭어서야할것

신선한 레―도볼연지
귀여운 레―도입술연지
아름다운색빗 레―도눈섭먹

レート化粧料本舖 東京 平尾贊平商店

新興 京劇
一回十一時・二回二時半・三回七時
京日ニュース・大每ニュース上映
新興京都の女性泣歌 若者 新田實 山口みく子 妻
新興京都ぐらひすコンビ大友・高山が唄ふ 姫君大納言
五日より十日まで

大陸劇場
自9日至13日間上映時間表
花ある雜草	11•00—12•13
ニュース	12•18—12•36 3•39—3•57 7•10—7•28
太勸屋リ當	12•39—2•11 4•00—5•32 7•31—9•03
花ある雜草	2•21—3•34 5•37—6•50 9•08—10•21

日活映畫 喜金座
四日 九日 マデヨリ
6•30	2•40	11•00	山彦
9•10	5•25	1•45	アトラクシヨン 呪文
7•30	3•40	12•00	ニユース
7•40	3•50	12•10	光われと等に共

入場料五十錢均一
アトラクシヨン・テイチク專屬 服部富子・櫻井健二・演歌師シヨウ

松竹映画 明治座
自9日至15日間上映時間表
桑の實は紅い	10•20—11•43
ニュース 映畫月報	11•46—12•13 3•15—3•42 6•50—7•17
四人の復讐	12•15—1•39 3•44—5•08 7•20—8•44
桑の實は紅い	1•49—3•12 5•13—6•36 8•49—10•13

若草東寶映畫劇場 電話本局 五三五三番 六七一二番
10月9日より上映時間表(早朝割引)
赤ちやん教育	10•50	2•45	6•40
地中海(豫告篇)	12•35	4•30	8•30
東寶映畫(豫告篇) ニュース	12•45	4•40	8•4
女の教室(中後篇)	1•00	4•55	8•55

第一劇場
5日より RKO特作 花嫁の秘密 バーバラ・スタンウイック 主演
金剛キネマ特作 河童の仇討 天津龍太郎 主演
メトロ特作 椿姫 グレタ・ガルボ主演
近日來演 漫 笑 團

東洋劇場 電話光 二一五四
朝鮮聲樂研究會 秋季特別大公演 十月七日부터十一日間
金容承 脚色 唱劇新作春香傳 全篇
萬古不朽의名劇春香傳 朝鮮의東洋的聲樂의名篇春香傳 研究會의자랑거리인唱劇春香傳 더욱히새 脚色하여七幕十六場으로된春香傳 朝鮮聲樂研究會가愛劇家諸賢에게 드리는新秋의勝物이외다
次週上演 金容承 脚色 唱劇 沈淸傳 六幕九場
『特告』여러분의絶對援助밋레 날노날노자라나든靑春座豪華船은지난六日로끗맛치고、[illegible] 巡演의길을떠나게되엿습니다 安寧히게십시요

桃花劇場
十月六日―八日 (三大名畫公開) 晝夜二回 [illegible]
『チンギスカンの後裔』 監督 Wプドフキン 主演 インキンノフ
松竹大船特作 彼女は何を覺えたか 監督 野村浩將 主演 高杉早苗 佐野周二
英ゴーモンブリテイッシュ超特作 東和商事社特別提供 『月光石』 監督 Tヘイス、ヘンター 主演 怪漢ボリスカロフ

十月八、九、十日 안동
演劇號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 朴順女 女史의 性格舍은 演技를 乞期待!
YKH
스윙그·알뱀 盆
東洋의씸리―텔플 當年六歲少女歌姬 金吉子孃 熱演
相對役 金順德 孃
羅津 初瀨座에서

釜山太平館專屬 劇團人間座
[illegible]
釜山 太平館